

결정에서 반응 조화설의 재검증*

안 상 지 이 영 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반응 조화설 (Shafir, 1993)은 결정에서 두 대안 중 한 대안의 특징들이 선택이
나 거부의 반응과 조화될수록 사람들이 그 대안을 더 택한다고 주장한다. 장단점
을 많이 가진 풍부한 대안이 그렇지 않은 보통의 대안보다 더 많이 선택되고 더
많이 거부되어야 한다. 유승민과 이영애(2001)는 이 가설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두 대안의 특징들의 제시 방식 그리고 질문 순서를 변
화시켜 반응 조화설을 검토하였다. 특징들을 나열하지 않고 문장으로 제시하고
선택 또는 거부 질문을 먼저 제시하였을 때 반응 조화설과의 예측과 상당히 일
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반응 조화설을 검토할 때 선호의 구성 방식이
중요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최근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주제어 : 반응 조화설, 결정, 풍부한 대안, 틀효과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KRF-2007-321-HS00022)의 지원에 의
해 수행되었다. 이 논문을 읽고 세심한 지적을 해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이영애,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세부분야: 판단과 결정

E-mail: yalee@ewha.ac.kr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불확실하거나 갈등적인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의사결정분석 연구들이 사용하는 모형들은 결정을 대안들의 가치를 수량화하고 분석하여 최대값을 만족시키는 선택이라고 가정한다.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Neumann & Morgenstern, 1947)은 합리적 결정이 가정하는 바를 식으로 만들어 결정 행동을 예측한다. 이 접근은 사람들이 결정 상황에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대안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할 수 있고 결과를 최대화(optimize)한다고 가정한다. 경제학의 모형들은 사람들의 선택이 그들의 선호를 나타내며 각 개인은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든 잘 정의된 선호 순위(preference order)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대안은 선호 순위에서 잘 확립된 위치를 갖는다. 따라서 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나 대안들을 기술하는 방법이 변해도 선호 상태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1970년대부터 심리학 연구들은 선호 역전 (preference reversal)을 포함한 여러 현상들을 발견했다 (개관은 Lichtenstein과 Slovic, 2006이 편집한 논문집을 참고). 사람들은 한 쌍의 내기 중 하나를 택하지만 나중에 값을 매겨야 하면 그들이 택하지 않았던 내기에 더 높은 값을 매긴다 (Lichtenstein과 Slovic, 1971). 수익성이 높은 복권과 당첨확률이 높은 복권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하나를 택하게 하면 수익성이 높은 복권보다는 당첨확률이 높은 복권을 택한다. 그러나 값을 매겨야 하면 당첨확률이 큰 것 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복권에 더 큰 값을 매긴다. 이처럼 선호는 대안이 표현되는 방법(예: 이익에 의해서인지 혹은 손실에 의해서인지)과 선호가 유도되는 절차(예: 가격매기기인지 혹은 선택인지)에 민감하다(Tversky & Kahneman, 1986; Tversky, Sattath, & Slovic, 1988). 선호 역전 현상은 대안들에 대해 잘 정의된 선호 순위가 있음을 가정하는 경제학의 모형들로 설명되기 힘들다.

선호 역전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이 자극의 배열과 조화되면 더 정확하고 더 빨라진다. 표적 광점을 탐지하는 반응을 할 때 왼쪽에 제시된 광점은 왼쪽 반응기에, 오른쪽에 제시된 광점은 오른쪽 반응기에 배정되면 그 반대의 배정 조건에 비해 사람들은 표적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탐지한다. 같은 설명을 선호 역전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 (예: Slovic & Lichtenstein, 1983; Tversky, Slovic, & Kahneman, 1990). 대안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때 반응과 조화되는 자극들은 그 가중치가 높아지므로 선택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거부할 때는 부

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보일 것이다. 자극의 어떤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 요소들과 요구되는 반응이 조화되기 때문이다(Slovic, Griffin, & Tversky, 1990; Tversky 등, 1988).

사람들에게 그들이 두 대안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또는 어떤 것을 거절하고 싶은지 묻느냐에 관계없이, 첫 번째 대안을 선호하는 사람은 두 번째 대안을 당연히 거부해야 하며, 두 번째 대안을 선호하는 사람은 당연히 첫 번째 대안을 거부할 것이다. 한 대안이 긍정적 특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면, 더 많이 선택되고 더 적게 거부되어야 한다. 역으로 부정적 특징을 더 많이 가진 대안들은 더 많이 거부되고 선택은 더 적게 되어야 한다. 선호 역전 현상은 이와 대조적인 예측을 시사한다.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response compatibility hypothesis)은 선택 또는 거부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긍정적 특징들은 이를 포함하는 대안을 거부할 때보다는 선택할 때 더 큰 비중을 받고, 부정적 특징들은 이를 포함하는 대안을 선택할 때보다는 거부할 때 큰 비중을 받는다. 반응 조화설은 한 대안이 더 큰 긍정적 특징들과 더 큰 부정적 특징들을 가질 경우 그 대안은 다른 대안보다 선택도 더 많이 되고 거부도 더 많이 됨을 예측한다.

Shafir(1993)는 참여자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더 많이 가진 풍부한 대안(enriched option)과 그 특징들이 두드러지지 않은 보통의 대안(impooverished option)을 제시하여 선택 상황과 거부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더 많이 선택 또는 거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반응 조화설에 따르면, 대안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장점을 확대하여 보는 반면, 어떤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점을 확대하여 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들을 더 많이 가진 풍부한 대안이 그렇지 못한 보통의 대안보다 선택도 더 많이 되고, 거부도 더 많이 되어야 한다. Π_c 와 Π_r 을 각각 어떤 대안을 선택한 비율과 그 대안을 거부한 비율이라고 하자. 만약 선택하기와 거부하기가 보완적이라면 $\Pi_c + \Pi_r$ 은 100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응 조화설이 타당하다면 장단점을 많이 가진 풍부한 대안의 경우 $\Pi_c + \Pi_r$ 은 100보다 커야하고, 보통의 대안은 100이하가 되어야 한다. Shafir는 이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권, 휴가지, 수강과목, 아이스크림, 복권, 선거 등의 상황을 다룬 선택 문제들을 미국 대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그의 결과는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였다.

반응 조화설은 사회적인 선택에서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정직성이나 도덕성과

같은 성격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고려 대상인 특성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누구나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성격적으로 장단점이 뚜렷한 사람(풍부한 대안)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통의 대안)보다 어떤 특질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될 것이다. X라는 사람이 Y라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인정이 많다고 했을 때, X가 Y보다 비도덕적이고 인정이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반응 조화설에 따르면, 풍부한 정보로 기술된 X에 대하여 도덕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Y보다 더 비도덕적이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 Down과 Shafir(1999)는 참여자들이 잘 알고 있고 풍부한 정보로 표현되어 있는 인물(enriched personage)과 정보가 별로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인물(impooverished personage)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용사로 묘사된 인물을 찾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풍부한 정보로 표현된 인물이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형용사들에 모두 해당된다고 반응하였다(반응조화설의 예측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종합 논의를 참고할 것).

유승민과 이영애(2001)는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Shafir가 사용한 문제들 중 5 개(양육권 수여, 휴양지 선택, 수강과목 결정, 아이스크림구입, 시장선거)를 번역하고, 한국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을 다룬 5 개의 문제(식당 선택, 직장 결정, 옷 구입, 배우자 선택, 아르바이트 결정)를 새로 만들었다. 유승민과 이영애의 연구에서 10 문제 중 2 문제에서만 참여자들은 풍부한 대안을 보통의 대안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반응 조화설에 따라 결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 조화 과정의 역할이 미약함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반응 조화설을 기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 가설이 유승민과 이영애의 연구에서 완전히 기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낸 양육권과 직장 문제의 경우, 참여자들이 선택할 때는 장점에, 거부할 때는 단점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더 준데 비하여, 나머지 결정 문제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선택의 경우 장점인 특징들에, 거부의 경우 단점인 특징들에 비중을 주지 않는다면 Shafir(1993)의 가설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대안의 특징들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반응을 요구하는 순서 때문에 특징들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연구로 구성된다. 연구 1은 유승민과 이영애(2001)의 연구 2에서 사용된 대안들을 자세히 표현하였다. 그러나 연구 1은 유승민과 이영애가 얻은 것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2는 대안의 특징들을 나열하지 않고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두 연구에서 대안들의 특징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 (방법란 참고)이 반응 유형에 따라 장점이나 단점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 1과 2의 참여자들은 두 대안을 읽은 다음에 선택 또는 거부의 물음을 제시 받았다. 이런 절차가 선택 또는 거부 반응과의 조화를 덜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응 조화 기제가 활성화되려면 참여자들은 대안의 선택 또는 거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처리해야 한다. 연구 3은 대안들을 읽기 전 선택 또는 거부 질문을 미리 제시하였다. 이처럼 개선된 조건에서 반응 조화설의 예측을 검토하였다.

연구 1. 반 복

유승민과 이영애 (2001)는 Shafir (1993)의 결과를 반복하지 못하였다. 연구 1은 이들이 사용한 대안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표현하여 선택이나 거부에 따라 장점 또는 단점에 주의하도록 하여 유승민과 이영애의 연구를 다시 검토하였다. 그 이외 연구 1은 이 연구자들이 사용한 것과 같은 질문지와 절차를 사용하였다.

방 법

참여자

E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를 수강중인 학생 19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선택 조건에 95명, 거부 조건에 99명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자극 재료

Shafir(1993)의 결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 모두를 더 많이 가진 풍부한

대안과 그 장단점 특징들이 두드러지지 않은 보통의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 상황과 거부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더 많이 선택 또는 거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유승민과 이영애(2001)의 실험 2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되, 풍부한 대안의 경우 장점과 단점이 두드러지도록 표현하고, 풍부한 대안과 보통의 대안의 특징들의 수가 같도록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Shafir는 그의 예언을 검증하기 위해 양육권, 휴가지, 수강과목, 아이스크림, 복권, 선거 등의 상황으로 이루어진 문제들을 미국 대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유승민과 이영애(2001)는 Shafir가 사용한 문제들 중 5개와 한국 대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에 대한 5개의 새 문제를 만들었다. 즉 Shafir가 사용한 5개의 문제(양육권 수여, 휴양지 선택, 수강과목 결정, 아이스크림구입, 시장 선거)와 한국 대학생들에게 친숙하고 특징 조작성 용이한 상황을 포함하는 5개의 문제(식당 선택, 직장 결정, 옷 구입, 배우자 선택, 아르바이트 결정)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문제로 결정하기 문제를 구성하였다. 10개의 문제들을 무선적으로 배열하여 선택과 거부의 상황별로 각각 문제의 유형이 5개가 되도록 하였다. 선택 조건과 거부 조건의 참여자들에게 제시되는 문제는 상황 기술과 대안의 내용은 동일하고, 마지막 질문에서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연구 1에서 사용된 양육권 문제이다.

당신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혼 소송에서 한 아이의 전적인 양육권을 부부 중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 사건의 배심원입니다. 이 소송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실들은 부모 양쪽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사항들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당신은 다음의 몇 가지 관찰 결과들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모 1

- ① 평균 정도의 수입
- ② 보통의 건강
- ③ 보통의 근무 시간

부모 2

- Ⓐ 수입이 많다
- Ⓑ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
- Ⓒ 일과 관련된 잦은 여행

- ④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 있음 ① 아이와 매우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⑤ 무난한 성격 ② 인정이 많다

**질문) 당신은 부모 둘 중 어느 쪽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주겠습니까 (거부
조건의 경우 주지않겠습니까)?**

부모 1 () / 부모 2 ()

절차

대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주어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선택 또는 거부 조건에 할당되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자극 재료를 받았다. 10 개의 결정 문제들은 지시문, 상황 기술문, 검사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극 재료는 순서를 다르게 구성한 5 개의 세트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은 모두 상황 기술문을 읽고, 할당된 조건에 따라 선택 또는 거부할 대안을 택하였다.

결과 및 논의

10 개의 결정하기 문제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 결과는 표 1과 같다.

선택과 거부 각각의 조건에서 각 대안을 택한 빈도와 퍼센트, z검증 값이 표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z값은 장단점이 풍부한 대안을 택한 비율과 거부한 비율이 100보다 유의하게 큰지를 검증한 것이다.

각 결정하기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양육권과 직장문제에서만 Shafir의 가설이 예측한 것과 일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풍부한 대안에서 $\Pi_c + \Pi_r$ 이 유의미하게 100을 넘는 경우는 양육권 문제와 직장문제였다.

앞의 5개 문제에 대하여 Shafir(1993)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Shafir 연구에서는 5개 문제 모두에서 풍부한 대안의 $\Pi_c + \Pi_r$ 가 모두 유의하였다.

연구 1에서는 유승민과 이영애(2001)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총 10 개의 결정

<표 1> 각 대안을 선택/거부한 참여자들의 빈도(백분율)와 그 유의도

문제	대안	선택 빈도 (%)	거부 빈도 (%)	z
1. 양육권	보통	46 (48)	36 (36)	2.14*
	풍부	49 (52)	63 (64)	
2. 휴양지	보통	45 (47)	54 (55)	-.26
	풍부	50 (53)	45 (45)	
3. 수강과목	보통	53 (56)	39 (39)	.67
	풍부	42 (44)	60 (61)	
4. 아이스크림	보통	37 (39)	59 (60)	.20
	풍부	58 (61)	40 (40)	
5. 시의장선거	보통	60 (63)	37 (37)	-.08
	풍부	35 (37)	62 (63)	
6. 식당	보통	65 (68)	32 (32)	-1.10
	풍부	30 (32)	67 (68)	
7. 직장	보통	18 (19)	66 (67)	2.03*
	풍부	77 (81)	33 (33)	
8. 아르바이트	보통	22 (23)	70 (71)	.42
	풍부	73 (77)	29 (29)	
9. 배우자	보통	56 (60)	52 (53)	1.77
	풍부	38 (40)	46 (47)	
10. 옷	보통	63 (66)	45 (45)	-1.65
	풍부	32 (34)	54 (55)	

* $p < .05$

문제 중 두 문제에서만 풍부한 대안을 택한 비율과 거부한 비율이 합해서 100을 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반응 조화설과 다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전, 사람들이 선택해야할 경우 장점에, 거부해야할 경우 단점에 각각 주의를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유승민과 이영애의 연구는 두 대안의 비교 특징들을 차원별로 나란히 제시하였다 (앞의 방법란 참고).

<표 2> Shafir 연구에서 각 대안을 선택/거부한 참여자들의 백분율과 그 유의도

문제	대안	선택 빈도 (%)	거부 빈도 (%)	z
1. 양육권	보통	36	45	2.48*
	풍부	64	55	
2. 휴양지	보통	33	52	2.05*
	풍부	67	48	
3. 수강과목	보통	25	65	2.25*
	풍부	75	35	
4. 아이스크림	보통	28	55	3.22**
	풍부	72	45	
5. 시의장선거	보통	79	8	3.68**
	풍부	21	92	

* $p < .05$, ** $p < .01$

이것은 Shafir (1993; Shafir, Simonson & Tversky, 1993)의 제시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단지 선택/거부 질문을 대안들을 제시한 후 묻은 것만 달랐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어떻게 특징들을 처리했을까? 사람들은 각 대안의 여러 특징에 무게를 주고 특징들을 종합하는 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예: Dawes, 1979). 따라서 그 특징들의 값을 수량화하고 그 총합을 비교하여 한 대안을 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그 어떤 방법을 사용했건 간에 차원 별로 두 대안을 비교하느라 선택 반응과 조화된 장점, 거부 반응과 조화된 단점에 더 주의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대안의 특징들을 제시하면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한 방법은 사람들이 선택이나 거부 반응의 이유를 문장으로 말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각 대안의 특징들을 문장으로 제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당면하는 결정상황과 유사하게 하면 참여자들이 반응 조건에 따라 문장 내의 장점 또는 단점에 더 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 문장제시의 효과

연구 2는 연구 1과 달리 두 대안의 특징들을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제시 상황에서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해서 풍부한 대안이 보통의 대안보다 선택 및 거부가 많이 되는지 검토하였다.

방 법

참여자

E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를 수강중인 학생 149 명이 연구 2에 참여하였다. 선택 조건에 73명, 거부 조건에 76명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자극 재료

연구 2의 예비 실험에서 대학생 40 명을 대상으로 각 의사결정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들을 쓰도록 하여, 그 요인이 장점과 단점으로 작용하도록 대안의 항목을 일부 수정하였다. 두 대안을 차원 별로 나란히 제시하지 않고 특징들을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보통의 대안과 풍부한 대안의 순서를 섞어 순서효과를 배제하였다.

연구 2에서 양육권 문제의 경우 두 대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부모1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보통 회사원들과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을 한다.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편이며, 성격에는 별 특이점이 없고,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부모2는 아이와 매우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일과 관련되어 출장이 잦다. 건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수입은 많고, 주위에서 인정이 많

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참여자들이 선택 또는 거부를 할 때 장점 또는 단점에 선택 주의를 더 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 또는 거부의 이유가 무엇인지 적도록 하였다.

절차

연구 I 과 동일한 절차를 사용하였으나, 연구 II에서는 선택 또는 거부의 결정을 하고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는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각 대안의 특징들을 정렬시키지 않고 문장으로 제시하여 얻은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양육권, 아이스크림, 식당, 직장, 그리고 배우자 문제에서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휴양지, 수강과목, 시의장 선거, 아르바이트, 옷에 관한 문제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2에서 반응 조화 설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문제는 10 문제 중 5 문제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자유롭게 언급한 반응들을 분석한 결과, 선택과 거부 조건에서 판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각 대안의 특징들을 문장으로 제시한 연구 2는 연구 1보다 더 많은 문제들에서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1과 달리, 10 문제 중 5 문제에서 반응 조화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대안의 특징들이 기술되는 방식과 선호가 유도되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선택과 거부의 조건에서 사람들은 선택 또는 거부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의 특징들을 읽어야 한다. 연구 1과 2의 거부 조건의 경우 질문이 마지막에 나오므로 사람들은 대안의 선택을 전제로 결정 문제를 읽었을 것이다. 즉 거부에 초

<표 3> 각 대안을 선택/거부한 참여자들의 빈도(백분율)와 그 유의도

문제	대안	선택 빈도 (%)	거부 빈도 (%)	z
1. 양육권	보통	42 (58)	16 (21)	2.67*
	풍부	31 (42)	60 (79)	
2. 휴양지	보통	35 (48)	36 (47)	.57
	풍부	38 (52)	40 (53)	
3. 수강과목	보통	9 (12)	62 (82)	.75
	풍부	64 (88)	14 (18)	
4. 아이스크림	보통	26 (36)	36 (47)	2.10*
	풍부	47 (64)	40 (53)	
5. 시의장선거	보통	49 (67)	21 (28)	.65
	풍부	24 (33)	55 (72)	
6. 식당	보통	47 (64)	15 (20)	1.97*
	풍부	26 (36)	61 (80)	
7. 직장	보통	14 (19)	49 (65)	2.02*
	풍부	59 (81)	27 (35)	
8. 아르바이트	보통	57 (78)	14 (18)	.43
	풍부	16 (22)	62 (82)	
9. 배우자	보통	22 (30)	41 (54)	1.98*
	풍부	51 (70)	35 (46)	
10. 옷	보통	55 (75)	15 (20)	.61
	풍부	18 (25)	61 (80)	

* $p < .05$

점을 맞추기보다는 대안을 선택하여 장점에 주의하고, 그렇지 않을 때 거부하는 과정을 따르게 된다. 이 경우 두 대안의 단점에 선택적으로 주의하기 힘들 것이다. 대안의 선택이나 거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각 대안의 특징을 읽을 경우 장점 또는 단점이 부각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선택 또는 거부의 질문을 먼저 제시하여, 선택 또는 거부 반응에 각각 주의하여 결정 문제를 읽게 하여 반응 조화설의 예측을

검증해야 한다.

연구 3. 반응의 사전점화

연구 3은 연구 2의 결과 논의에서 제안된 가설, 즉 선택 또는 거부 반응을 먼저 점화시켜야 반응조화 과정이 효과를 낸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거부 반응의 경우 질문을 미리 제시하면 대안의 단점들을 더 주의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로 반응 조화설과 일치하는 결정이 관찰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E여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110명이 연구 3에 참여하였다. 선택 조건에 55명, 거부 조건에 55명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자극재료

연구 3은 각 대안을 설명하기 전, 선택 또는 거부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선택과 거부의 질문을 앞에다 놓아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해 선택적 주의를 하도록 하였다 (부록 1을 참고).

연구 3에서는 연구 2와 같은 양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의 물음을 먼저 제시하였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부모1/
부모2)

이러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연구 2와 동일한 수와 동일한 형식의 문제를 사용하였다.

절차

전반적인 절차는 연구2와 같았으나, 대안들의 특징 기술문 앞에 선택과 거부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선택과 거부의 질문을 미리 제시하여 얻은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3에서는 앞의 두 연구와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선택과 거부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 내용을 읽도록 한 결과, 양육권, 휴가지, 아이스크림, 시의장 선거, 식당, 직장, 배우자, 그리고 옷 문제에서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수강과목과 아르바이트 문제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3에서 장단점이 많은 풍부한 대안에 대해 $\Pi_c + \Pi_r$ 이 유의하게 100을 넘어 반응 조화 가설에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문제는 10 문제 중 8 문제였다. 연구 2에 비해서 연구 3의 각 문제에서 z 값이 더 커진 결과로 미루어 선택 또는 거부 반응을 미리 강조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과 표 4를 비교하면, 거부 반응에 관한 질문을 먼저 제시한 연구 3의 경우 여러 결정 문제에서 거부를 택한 참여자들의 백분율이 증가했다. 특히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한 휴양지, 시의장 선거, 그리고 옷 문제에서 7% 이상 거부 퍼센트가 늘었다. 이 결과는 거부 반응이 미리 점화되어야 참여자들이 이 반응과 조화되는 단점 특징들에 더 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1과 2의 결과에 비해 연구 3에서 반응 조화설의 예언과 일치하는 문제들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은 유승민과 이영애 (2001)의 결론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Shafir의 다섯 결정 문제 중 수강과목 그리고 유승민과 이영애의 결정 문제 중 아르바이트는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았다. 표 1, 3, 그리고 4의 결

<표 4> 각 대안을 선택/거부한 참여자들의 빈도(백분율)와 그 유의도

문제	대안	선택 빈도 (%)	거부 빈도 (%)	z
1. 양육권	보통	31 (56)	10 (18)	2.76*
	풍부	24 (44)	45 (82)	
2. 휴양지	보통	23 (42)	21 (38)	2.14*
	풍부	32 (58)	34 (62)	
3. 수강과목	보통	6 (11)	43 (78)	1.15
	풍부	49 (89)	12 (22)	
4. 아이스크림	보통	19 (35)	19 (35)	3.42**
	풍부	36 (65)	36 (65)	
5. 시의장선거	보통	34 (62)	10 (18)	2.14*
	풍부	21 (38)	45 (82)	
6. 식당	보통	34 (62)	8 (15)	2.56*
	풍부	21 (38)	47 (85)	
7. 직장	보통	9 (16)	32 (58)	2.76*
	풍부	46 (84)	23 (42)	
8. 아르바이트	보통	42 (76)	9 (16)	0.76
	풍부	13 (24)	46 (84)	
9. 배우자	보통	16 (29)	23 (42)	3.19**
	풍부	39 (71)	32 (58)	
10. 옷	보통	37 (67)	7 (13)	2.14*
	풍부	18 (33)	48 (87)	

* $p < .05$, $p < .01$.

과들을 비교하면, 수강과목의 경우 z 점수가 .67 (연구 1), .75 (연구 2), 그리고 1.15 (연구 3)로 변하였다. 즉 연구 2에서와 같이 병렬로 특징들을 제시한 것이 별 효과가 없었고, 연구 3에서와 같이 선택 또는 거부 반응을 대안들에 앞서 강조한 것은 약간의 효과가 있었으나 반응 조화설과 일치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z 점수가 .42, .43, 그리고 .76으로 제시 방식에 따른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았

다. 두 결정 문제는 연구 2와 3의 각 결과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대안이 선택되거나 (수강과목 88%, 89%), 압도적으로 풍부한 대안이 거부되는 (아르바이트, 82%, 84%) 결과를 보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어떤 결정 문제가 선택 반응 시에 더 많이 선택되고, 거부 반응 시에 더 거부되는, 즉 풍부한 대안에서 장점과 단점이 덜 갈등적이면 반응조화과정의 효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종합 논의

인간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춘 규범 모형들은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그의 선호와 신념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이미 구축된 신념과 선호들을 단순히 드러내지 않고, 결정 과정 중에 그들의 가치와 선호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은 선택이 묘사되는 방식에 민감할 수 있고, 또 선호가 유도되는 도중 자극과 반응의 조화가 영향을 준다. 선택 또는 거부의 결정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하며, 선택할 때는 장점에, 거부할 때는 단점에 더 가중치를 준다. 이런 조화원리에 따르면, 선택과 거부의 이유가 되는 장단점을 많이 포함한 풍부한 대안과 그렇지 못한 보통의 대안이 주어졌을 때, 풍부한 대안이 보통의 대안보다 선택도 더 많이 되고 거부도 더 많이 되어야 한다. Shafir(1993)는 반응 조화설의 타당성을 여러 결정 문제를 사용해서 검증하였다. Downs와 Shafir(1999)는 반응 조화설을 선택과 거부의 결정 상황 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을 판단하는 사회적 상황에도 확장시켰다.

유승민과 이영애(2001)는 Shafir(1993)가 고안한 5 개의 결정 문제와 한국 상황에 맞게 새롭게 만든 5 개의 문제를 가지고 반응 조화설을 검증하였으나 10 개의 문제 중 2 문제에서 이 가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즉 약한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만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 반응 조화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기 힘들다. 본 연구는 유승민과 이영애(2001)의 결정 문제의 제시방식과 절차를 수정하여 반응 조화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1은 유승민과 이영애(2001)의 연구 2에서 사용한 문제들을 수정하되, 풍부한 대안의 장단점을 더 분명하게 하여 사람

들이 선택 또는 거부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안의 특징들의 개수를 맞추어 한 대안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10개의 결정 문제 중 2 개만이 그 결과가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였다. 이는 유승민과 이영애(2001)의 결과를 반복한다. 연구 1에서 대안의 특징들을 나란히 제시하는 방식이 반응조화와는 다른 과정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 2는 각 대안의 특징들을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10 문제 중 5 문제에서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반응 조화설에 따르면, 선택 상황에서는 선택의 이유가 충분히 되는 장점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거부 상황에서는 거부의 이유가 충분히 되는 단점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 2의 참여자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 거부조건에서 판단의 차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선택을 전제로 하고 결정 문제를 읽기 때문에 거부조건의 경우에도 장점들을 주목하고, 한 대안을 선택한 후 거부 대안을 자동적으로 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 3은 사람들의 선택 반응이나 거부 반응에 선택적으로 주의하도록 하여 장단점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연구 3은 선택 또는 거부의 질문을 대안들을 제시하기 전에 제시하였다. 10 문제 중 8 문제에서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각 문제의 z 값이 연구 1과 2에 비해 더 컸다. 수강 과목과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결정짓기가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였다.

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개관된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기술되는 방식과 선호가 유도되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결정이 달라졌다. 즉 선택은 문제의 구조 틀과 유도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이 틀은 언어적 표현, 선택 맥락, 제시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예: Payne, 1982; Slovic & Lichtenstein, 1983; Tversky & Kahneman, 1986). 결정 시에 선택 또는 거부에 합당한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할 때는 장점에, 거부할 때는 단점에 더 선택적으로 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결정 내용(예, 양육권과 직장), 제시되는 대안의 특징 (특징들의 병렬제시, 문장으로 제시), 그리고 선택 또는 거부 반응의 사전 제시 등이 조작된 경우에 관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되는 대안의 특징들을 문장으로 제시하면서 선택 또는 거부 반응을 강조해야

10 개 문제 중 8 개에서 반응 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반응조화과정의 작용하려면 대안의 장점과 단점에 선택적으로 주의하게 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질문의 미리 제시하는 형식을 택해야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반응 조화설이 기술하는 결정과정이 작용하려면 대안들을 문장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선택 또는 거부 반응을 점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있다.

반응 조화설의 재검토.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을 본 연구의 결과들로 다시 검토해보자. 이 가설은 두 대안 중 장단점을 많이 가진 풍부한 대안이 충분히 갈등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선택도 많이 되고 거부도 많이 되는 갈등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하면, 풍부한 대안이 보통 대안보다 더 선택되고, 거부를 해야 하면 보통 대안보다 더 거부되어야 한다. 연구 3의 결과를 논의할 때 수강과목과 아르바이트 결정 문제의 경우 그 선택 또는 거부 반응이 한 대안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문제에서 의사결정 패턴이 반응 조화설의 예언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풍부한 대안이 충분히 갈등적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표 2(Shafir의 결과)와 4의 결과를 분석해보자. Shafir의 결과 중 풍부한 대안이 선택도 많이 되고, 거부도 많이 된 결정문제는 양육권 하나뿐이었다. 선택은 많이 되었으나, 거부율이 보통 대안과 비슷한 것이 휴양지, 나머지 두 문제의 경우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이 되면서 거부의 비율이 다소 높아 반응 조화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시의장선거의 경우 그 반대였다. 전반적으로 이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선택도 많이 되고, 거부도 많이 되어야 한다는 패턴에 잘 맞지 않았다. 본 연구의 3에서도 반응 조화설과 일치하는 결과 패턴을 보인 문제는 휴양지, 아이스크림, 그리고 배우자뿐이었다(표 4 참고). 양육권, 시의장 선거, 식당, 그리고 옷 문제의 경우, 선택 반응에서는 풍부한 대안이 덜 선택되었고, 거부 반응에서는 풍부한 대안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부되어 전체적으로 반응 조화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구체적으로 반응 조화설과 일치하지 않는 패턴이다. 풍부한 대안이 보통의 대안보다 선택도 많이 되고, 거부도 많이 되어야 한다.

반응 패턴의 분석 결과는 풍부한 대안의 장단점을 구성할 때 그들이 충분히 갈등적이도록 구성할 필요를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풍부한 대안의 장점과 단점들이

충분히 경쟁적이어서 선택 반응 또는 거부 반응이 요구될 때 선택적 주의를 더 끌어 그 갈등이 일시적으로 줄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의 진단이 없이 결정 문제가 구성되었을 때 앞의 분석처럼 반응 조화설이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들이 관찰된다. 이는 Shafir(1993, Shafir 등, 1993), 유승민과 이영애(2001),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결정 문제 구성의 중요한 측면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해서 반응조화과정의 세부적인 성질을 밝히는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3에서 타당성이 밝혀진 반응조화설의 대안적인 가설은 없는가? 채용 후보자들의 동기, 지능 등을 평정한 점수들로 된 대안들을 제시한 Ganzach(1995)는 반응조화설의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그는 결정에 대한 투신(commitment) 때문에 선택 반응조건에서 풍부한 대안이 선택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Wedell(1997)은 Shafir와 Ganzach 간의 갈등적인 결과는 두 대안의 유인성(attractiveness)에서 비롯됨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Wedell은 대안들 간의 차이가 거부 반응보다 선택 반응에서 더 크게 지각된다는 강조(accentuation)설을 제시하였다. Meloy와 Russon(2004)은 선호를 형성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적용하여 반응조화설, 투신설, 그리고 강조설의 예측을 비교하였다. Meloy와 Russo는 긍정적 특징을 가진 대안, 부정적 특징을 가진 대안 그리고 중간인(neutral) 대안을 제시하고 그 특징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제시될 때 한 대안을 택하는 참여자의 확신(confidence), 최종적으로 대안을 택할 때의 확실성 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투신설이나 강조설의 예측과는 달리 정보의 값(valence)과 과제(선택 대 거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투신설과 강조설은 이런 효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Meloy와 Russo의 결과들은 Shafir의 반응조화설의 예측과 일치한다. Shafir(1983)의 반응조화설과 경합하는 가설들은 모두 부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Meloy와 Russo의 결과와 함께 반응조화설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참고문헌

유승민 · 이영애 (2001). 선택과 거부의 의사결정문제에서 Shafir(1993)의 반응 조화설

-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13, 225-251.
- Dawes, R. M. (1979). The robust beauty of improper linear models in decision making. *American Psychologist*, 34, 571-582.
- Downs J. S. & Shafir E. (1999). Why some are perceived as more confident and more insecure, more reckless and more cautious, more trusting and more suspicious, than others: Enriched and impoverished option in social Judgment.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6, 598-610.
- Ganzach, Y. (1995). Attribute scatter and decision outcome: Judgment versus choic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2, 113-122.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Lichtenstein, S., & Slovic, P. Reversals of preference between bids and choices in gambling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89, 46-55.
- Lichtenstein, S., & Slovic, P. (ed.) *The construction of prefer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loy, M. G., & Russo, J. E. (2004). Binary choice under instructions to select versus rejec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3, 114-128.
- Payne, J. W. (1982). Contingent decision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92, 382-402.
- Shafir, E. (1993). Choosing versus rejecting: Why some options are both better and worse than others. *Memory & Cognition*, 21, 546-556.
- Shafir, E., Simonson, I. & Tversky, A. (1993). Reason-based choice. *Cognition*, 49, 11-36.
- Slovic, P., & Lichtenstein, S. (1983). Preference reversals: A broader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73, 596-605.
- Slovic, P., Griffin, D., & Tversky, A. (1990). Compatibility effects in judgment and choice. In R. M. Hogarth (Ed.), *Insights in decision making: A tribute to Hillel J. Einhorn* (pp.5-2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versky, A. & Kahneman, D. (1986).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Journal of Business*, 59, 251-278.
- Tversky, A., Sattath, S., & Slovic, P. (1988). Contingent weighting in judgment and choice.

Psychological Review, 95, 371-384.

Tversky A., Slovic, P. & Kahneman, D. (1990). The cause of preference reversal. *American Economic Review*, 80, 204-217.

Wedell, D. H. (1997). Another look at reasons for choosing and rejecting. *Memory & Cognition*, 25, 873-887.

1 차원고접수 : 2009. 3. 5
2 차원고접수 : 2009. 4. 7
최종게재승인 : 2009. 4. 8

(Abstract)

Re-examination of Response Compatibility Hypothesis in Decision-Making

Sang-Ji Ahn

Young-A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en's University

Three studies re-examined Shafer's(1993) response compatibility hypothesis in decision making. This hypothesis proposes that participants choose or reject an option when its features are compatible with either a selection or a rejection response. By changing the description of options into sentences and by the prior presentation of either a selection or a rejection question, we obtained results fairly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the response compatibility hypothesis. Based on the analysis of both previous and present results,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preference elicitation methods when constructing options. Our results were compared to those of recent studies.

Keywords : response compatibility hypothesis, decision making, enriched options, framing effect

<부록 1> 연구 3의 선택 조건 자극재료

* 당신이 다음에 주어진 각각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혼 소송 사건의 배심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중 한명에게만 양육권을 주어야 합니다. 이 소송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사실들은 부모 양쪽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사항들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당신은 다음의 몇 가지 관찰 결과들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부모1 / 부모2)

부모1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월급으로 생활하고 보통 회사원들과 비슷한 시간에 출퇴근을 한다.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편이며, 성격에는 별 특이점이 없고, 건강상태는 보통이다.

부모2는 아이와 매우 친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일과 관련되어 출장이 잦다. 건강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수입은 많고, 주위에서 성격이 매우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렇다면 (부모1/부모2)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은 봄 휴가 기간 동안 따뜻한 곳에서의 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지금 양쪽 모두 상당히 가치가 있는 두 선택 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휴가지 중 한 곳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행 안내책자는 이 두 선택 사양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해줄 뿐입니다.

당신은 어느 휴가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휴가지1 / 휴가지2)

휴가지1은 해변과 산이 있으며, 밤 유흥시설을 갖추고 있고, 숙박시설이 포함되어있다.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다른 교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휴가지2는 주위에 굉장히 멋진 해변과 산호초가 있고, 물가가 매우 싸다. 그러나 숙박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교통편이 불편하다. 밤 유흥시설은 없다.

그렇다면 (휴가지1/휴가지2)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당신은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과목을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기 애매한 두 과목이 있습니다. 강의 계획안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다음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은 어느 과목을 수강하시겠습니까? (과목1 / 과목2)

과목1은 시험이 잦고 과제물이 많다. 그러나 성적을 매우 잘 주며, 강의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그리고 수강신청하기가 힘들다.
과목2는 사회대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과목으로, 성적은 상대평가로 처리한다. 강의내용은 평이하며, 수강생수는 적당하고 성적평가로는 시험과 레포트가 있다.

그렇다면(과목1/과목2)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당신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아이스크림 중 하나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까? (아이스크림1 / 아이스크림2)

아이스크림1은 평범한 모양에 아이스크림 맛은 보통입니다. 아이스크림 2는 맛이 매우 좋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지방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아이스크림1/아이스크림2)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당신이 살고 있는 시에서 시의회 의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후보자가 이번 시의회 의장에 적합한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의 최종 후보자가 있는데, 지역 정치쪽에 대해 좀 알고 있는 한 친구가 당신에게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 주었습니다. 당신은 다음 중 어떤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후보자1 / 후보자2)

후보자1은 세금을 탈세한 전과가 있고, 성격이 매우 권위적이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 시의회 부의장으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였고, 무의탁 노인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지역 봉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다.

후보자2는 그 지역의 사업가로, 무난한 성격의 사람이다. 같은 구에 사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봉사활동에도 어느정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후보자1/후보자2)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당신은 오랜만에 만날 친구와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려중인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중 한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았으나 두 식당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식당 중 어느 곳에 가겠습니까? (식당1 / 식당2)

식당1은 청결상태가 매우 안좋으며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나 음식 맛이 매우 좋아 TV에도 자주 소개되었던 집이며, 가격도 매우 싸다. 종업원들은 불친절하다

식당2는 특별히 멀거나 가깝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식 맛은 보통이다. 가격은 보통이고 평범한 분위기에 서비스는 다른 식당들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식당1/식당2)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취업 때문에 여러 회사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합격증을 받은 두 회사를 놓고 어느 회사를 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회사 모두에 대해 결정을 더 이상 유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한 정보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장1/ 직장2)

직장1은 연봉이 타 회사들에 비해 굉장히 높고 장래성 있는 회사이다. 또한 회사 내에는 동창들과 선배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매우 많아 야근이 잦고, 일이 힘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직장2는 평범한 업종으로 다른 회사들과 근무시간이 비슷하다. 보수는 평균정도이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사내 분위기는 일반 회사들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직장1/직장2)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당신의 동생이 이번 학기에는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두 가지 일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괜찮은 일이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 게 더 좋을지 동생에게 조언해 주려 합니다. 동생에게 들은 정보는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에게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겠습니까? (아르바이트1/ 아르바이트2)

아르바이트1은 일이 매우 힘들고 학업에 매우 지장을 준다. 그러나 보수가 높고, 인턴자격이 인정되며, 흥미로운 일이다. 아르바이트2는 보수는 다른 일들과 비슷하며, 일이 그리 힘들지는 않다. 아르바이트로서 평범한 경험이며, 공부에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1 / 아르바이트2)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당신은 결혼을 염두에 두고 두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계획하면서 두 사람 모두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사람이지만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결정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두 사람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배우자1 /배우자2)

배우자1은 주위사람들이 성격이 매우 까다롭다는 평판을 내리고 있다. 명문대 출신으로 매우 장래성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대화시에 서로 공감의 많고 이야기가 잘 통한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 배우자2는 대화할 때 공감은 보통이고, 무난한 성격으로, 평범한 집안이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보통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1/배우자2)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왔습니다. 여러 매장을 둘러보는데 사고 싶은 옷이 많아 쉽게 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본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두 벌 골랐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당신은 한 벌을 살 정도의 돈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벌의 옷 중 하나만 사야 합니다.

당신은 두 옷 중에서 어떤 옷을 선택하겠습니까? (옷1 / 옷2)

옷1은 평범한 디자인으로 소재와 내구성은 보통 수준이다. 가격은 특별히 비싸지도 싸지도 않으며, 브랜드 제품이다. 옷2는 디자인이 매우 예쁘고 소재가 고급이다. 그러나 가격이 매우 비싸고, 내구성이 떨어지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그렇다면 (옷1/옷2)를 선택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